

한 세대를 넘어 남도 문인화로 이어진 사제의 시간

‘의재와의 아름다운 동행’展...오는 7월까지 의재미술관

의재 예술정신 계승...전통 기반 각기 다른 결로 풀어낸 화업 조망

의재 허백련이 남긴 예술의 정신과 그 가르침을 품고 각자의 길을 걸어온 제자들의 작업이 한

공간에 모였다.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제의 시간과 남도 문인화의 흐름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다.

의재미술관은 오는 7월31일까지 미술관 1, 2, 4 전시실에서 2026년 기획전 ‘의재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연다.

이번 전시는 의재 허백련의 예술정신과 그 계승 과정을 조명하는 자리로,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 남도 문인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됐는지 살펴본다.

전시에는 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예, 사군자, 산수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남종문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화면을 풀어내는 방식과 표현에서 각기 다른 결을 드러낸다.

전통이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조망한다.

제1·2전시실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정신을 담은 산수 작품을, 제4전시실에서는 전통의 맥을 잇는 문인화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공간별 구성은 의재와 제자들의 예술적 흐름을 따라가도록 짜였다.

의재 허백련은 남종문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남도 화단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필



춘설현 아집도(1976 합작)

〈의재미술관 제공〉

묵의 법도와 문기의 수양을 함께 강조하며, 시·서·화를 하나의 인문적 흐름으로 이해했다. 예술을 기술이 아닌 인격과 수양의 문제로 바라본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화법 전수를 넘어 예술가의 삶과 자세 전반에 걸친 가르침으로 이어졌다. 연진회(鍊眞會)는 그 뜻을 함께한 교유와 수련의 장으로, 의재의 예술 세계가 공유되고 다져진 공간이었다.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 관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필법과 정신적 절제를 중시하면서도 화면의 해석과 표현은 각자의 몫으로 남겼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되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작품에 담았으며, 그 결과 남도 문인화는 전통 안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형성하게 됐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각기 다른 화면을 완성해 온 과정이다.

이번 전시는 이 같은 관계를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같은 뜻을 나누며 각자의 길을 걸어온 시간의 축적을 보여주는 자리다.

시에서는 단정한 필획을 통해 품격을 드러내고, 산수에서는 남도의 자연과 삶의 경험을 담아내며, 사군자에서는 절제된 정신을 표현한다.

이러한 차이는 스승의 가르침이 각자의 작업 속에 자리한 결과로 읽힌다.

전시는 의재와 제자들의 관계를 하나의 계보로 한정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

그 흐름 안에서 남도 문인화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의재와 제자들이 함께 이어 온 예술의 시간을 마주하며, 전통이 오늘의 삶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해 그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금봉 박행보작 ‘농경도’



계산 장찬홍작 ‘묵란’(왼쪽)과 우계 오우선작 ‘산수’

겨울 견디고 꽃 피운 ‘매화’를 만나다

강남구 개인전, 13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인내와 생명의 회복을 성찰하는 전시가 열린다.

강남구 작가 개인전이 오는 13일부터 4월30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 온 ‘매화’를 주제로 인내와 시간, 생명의 회복이라는 서사를 화화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화면 속 매화나무는 굵고 뒤틀린 가지 위에 꽃을 피우며,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뒤 드러나는 생명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매화는 정적인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는 생명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과도 맞닿는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화면 구성이다. 작가는 사실적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배경 전체에 감정의 색을 배치해 매화가 피어나는 ‘내면의 계절’을 표



‘매화를 탐하다’

현한다. 차가운 겨울의 긴장감과 봄의 생동감이 한 화면 안에서 교차하며,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번 전시는 전통 회화에서 고결함과 절개의 상징으로 그려졌던 매화를 현대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강남구 작가는 “매화는 꽃이 피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다림까지 포함해 하나의 완성된 존재”라며 “이번 전시가 결과보다 과정의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수묵으로 쌓은 시간 풍경... ‘흔적의 층’

김지훈 작가 기획전, 29일까지 금봉미술관

시간이 남긴 흔적과 공간의 기억을 한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회화가 관람객을 만난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오는 29일까지 김지훈 작가 기획전 ‘흔적의 층(層)’을 개최한다.

작가는 시간과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화면 위에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구의 자전 속에서 축적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한 공간을 미적인 조형으로 해석한다.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의미를 회화로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오랜 시간 역사적 흔적을 품어온 서남해안의 개펄과 물길을 화면의 바탕 이미지로 전개한다. 여기에 1천500년 전 백제시대 벽돌인 봉황문전과 반룡문전에 찍힌 봉황과 용의 형상을 차용해 과거와 현재, 공간이 만나는 장면을 엮어낸다.

작업 과정 또한 이러한 개념과 맞닿아 있다. 작가는 수묵 매체인 담묵에서 시작해 중묵과 농묵의 순서



‘흔적의 층-蒼藍銀漣’

로 붓질을 더해가며 화면의 층을 쌓아간다. 수묵의 층이 겹겹이 더해지는 과정은 자연이 오랜 시간 흔적을 형성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

형상의 밀비탕은 수묵으로 재현하고, 이후 순금박과 순은박 등 빛을 반사하는 금속성 재료를 실크스킨 과정을 통해 더한다.

여기에 전통 채색 재료와 현대 재료인 아크릴을 함께 사용해 서로 다른 물질과 시간성을 지닌 재료들이 한 화면 안에서 겹쳐지도록 구성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